

지역 소식통

완주군, 드림오케스트라 지원 추가 연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들의 국악오케스트라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본부장 문정훈), 전통문화마을(이사장 김진형)과 IS와 함께하는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온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업무협약이 지난 4월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 활동지원을 위해 완주군-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통문화마을이 협약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협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아동모집 및 연습장소를 제공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LS후원금 사업비(8600만원)를 지원한다. 전통문화마을은 전문 강사진을 연계해 교육을 맡게 된다.

지난 17일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아동 40여명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해금, 피리 등 총 10종의 악기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악기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매월 1회 합주연습을 진행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사랑에(愛)쉼터 나들이

김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28일 사랑에(愛)쉼터 2기 및 분소에 참여하는 치매 어르신·가족 60여명과 벽골제 명인 학당 추억 나들이를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한복 체험 및 사진 촬영, 전통혼례 체험, 비누 꽃 바구니 만들기,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작은 음악회는 지역특화 치매 예방교실 어르신들의 오카리나 연주, (사)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연계하여 공연의 다채로움을 높였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치매 파트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치매안심택시를 이용하여 벽골제로 이동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군청 잔디광장서... '완주에서 만나는 바흐' · '완생동에 누에 한마당 축제' 등 개최

완주군청 잔디광장에서 오랜만에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28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임석주 이사장)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완주군청 잔디광장에서 '2020 문화가 있는 날 완주에서 만나는 바흐! 완생동에 누에 한마당 축제'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선정됨에 따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에서 기획과 운영을 맡아 협업 진행되는 사업이다.

30일 16시 완주군청에서는 '월하상림(月下桑林) 생강&커피 칸타타 콘서트'가 열린다. 봉동생강을 주제로 만든 '생강타령' 시연과 함께 바흐첼버

플레이어스의 특별한 오케스트라 무대가 진행된다. 봉동 생강차, 커피를 즐기며 공연을 볼 수 있다.

31일 13시에는 '완생동에 누에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완주군 전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며 완주군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만경강 발원지 '밤샘' 탐방과 완주꿈나무체험관학습장에서 만경강 생태보존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는 31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만경강 일제수탈의 역사&생태 보존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한 만경강 역사자료를 복원해 전시함과 동시에 이호연

작가의 만경강 생태보존 사진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임석주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완주군민들과 완주지역 예술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완주군 내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하며 손 소독과 함께 방문객 열 체크, 참가자명부 작성이 진행된다. 발열증상, 감기증상을 보유한 관람객은 행사참여가 불가능하다. 기타 참여 문의는 063-291-7246 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27일 리태일 완주부군수는 김영규 전주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상장과 명패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상'

완주군, 11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문 수상 '꽤'

완주군이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7일 리태일 완주부군수는 김영규 전주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상장과 명패를 받았다.

이로써 완주군은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일자리 대상 평가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0년 7기 공약사업과 일자리 종합대책, 세 부문에서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영규 고용지청장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꾸준히 수상한 완주 공무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다"며 "지청도 지역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복지 해소를 위해 완주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태일 완주부군수는 "완주군 산업 단지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삼봉지구 분양으로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상당부분 해소 나갈 것이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일자리 종합대책, 세 부문에서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영규 고용지청장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꾸준히 수상한 완주 공무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다"며 "지청도 지역의 일자리

/원주=이종복 기자

'지평선 시네마에서 천원에 영화를 즐기세요'

안전하고 슬기로운 영화관람... '일상 속 영화두기' 2차 캠페인

김제 지평선시네마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극장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슬기로운 영화관람 2차 캠페인 '일상 속 영화두기'의 시작으로 모던영화 6천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평선시네마는 작은영화관으로 6,000원 할인을 적용하지만 관람 요금이 6,000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 관객 최소 결제금액 천원을 부담하여 실질

적으로 5,000원을 할인받고 천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할인권은 현장발권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온라인 예매를 한 경우는 영화상영 30분전에 현장에 와서 취소하고 다시 현장발권을 받아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할인혜택은 다수의 시민들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1인 4매까지 가능하며 예선이 소진될 때까지

천원에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지평선시네마는 상영관 입장 시 발열 체크, 극장내 좌석간 거리두기, 등세심한 방역 활동을 통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현재까지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5,000원 할인을 통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영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제 245회 임시회 개최 · 신임 김영자 의장 선출



김제시의회는 28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나흘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특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건은 내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 방향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된 주요 의정활동

이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시의회 의장직 궐위에 따라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석이 된 의장 보궐선거도 치러졌다. 11명의 시의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자 의원(가선거구)이 10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김영자 의장은 "어느 때보다 의회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김제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완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 35가구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완료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선정해 안전손잡이, 출입구 경사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겸 욕실, 주방, 보일러 등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불편한 집 구조를 개조해 일상생활 속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로 김제시는 연초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